



텔레비전 중매쟁이가 말하는 결혼상대 고르는 법

오늘엔 텔레비전도 중매를 합니다. 마치 단채미팅처럼 여러 명의 남녀를 출연시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 카플로 맺어주는 이른바 "짝짓기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6 박진규 (서울여대 인문영양학부 교수)

각 4-5명씩 나와서 게임과 퀴즈, 장기자랑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뒤 최종적으로 "사랑의 작대기"라 불리던 장치로 짝을 맞춰가던 오락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은 폐지되고 후속이나 실 등의 명절에 연예인 특집으로 만들어져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요. <사랑의 스튜디오> 이후로는 <친생연분(MBC)>이나 <장미의 전쟁(KBS)>처럼 연예인들을 출연시켜 비슷한 포맷으로 꾸민던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방송되는 것으로는 SBS <짝>을 들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2011년 초 <SBS 스페셜, 애정촌>이라는 제목의 단막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습니다. "애정촌"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결혼상대를 고르기 위해 벌이는 결혼 적령기 청춘 남녀의 경쟁과 심리를 분석한 다큐멘터리였지요. 미래의 배우자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세태와 심리를 꽤 흥미롭게 그려냈습니다. 그러더니 다큐멘터리적 요소를 줄이고 오락적 요소를 강화하여 정규 편성되기 시작합니다.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짝>은 술한 회계를 낳았고 "돌싱특집", "만혼특집", "모태솔로특집" 등 출연자의 성격을 특화한 에피소드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직업을 숙이고 나온 출연자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고, 실제 결혼으로 이어진 커플들이 탄생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짝>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MBC에서는 <정글러브>라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나왔고, 종편채널 MBN은 <마파도(마지막 파트너 도전)>라는 제목으로 노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짝>의 기본 포맷은 이렇습니다. 결혼 적령기 남녀 각 5-7명이 애정촌에서 일주일간 함께 생활합니다.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남녀의 숫자를 달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 모인 이유는 단 하나, 결혼 상대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애정촌에서는 서로의 이름 대신 "남자 O호", "여자 O호"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등에는 자신의 번호표와 함께 "나도 짝을 찾고 싶다"는 슬로건을 달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외적 조건을 벗어버리게 한다는 의도라고 설명하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서로에게 인격적인 존제가 아니라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만난 이들이 상대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인간적 연민 따위는 무시해도 좋도록 돕는 장치라고나 할까요?

프로그램은 일주일 동안 이들의 생활을 성우의 내레이션과 함께 보여줍니다. 내레이션은 사람들의 미묘한 심리상태를 간결하게 설명해 줍니다. 짝짓기를 둘러싼 행동과 심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마치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지요. 그런가하면 출연자들은 자신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각자 카메라 앞에 털어놓습니다. 시청자들이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은 채 경쟁구도를 지켜보는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애정촌에 들어온 첫날 이들은 서로의 나이나 직업, 출신을 비롯해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로 만납니다. 첫 인상과 외모만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지요. 둘째 날 자기소개 시간이



되면서 출연자들의 “스펙”이 드러납니다. 자기소개가 끝나면 프로그램은 마치 운동선수의 프로필을 소개하듯 출연자들의 나이, 최종학력, 직업 등의 정보를 담은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입니다. 두 번의 “도시락 선택”, “식사와 데이트 선택”, “데이트 관련 쟁탈 체육대회” 등의 장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시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호감도가 서로 엇갈려 오해도

생기고, 인기 있는 사람을 두고 치열한 질투와 경쟁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날 이들은 서로의 마음을 결정하고 최종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결혼상대로 선택한 사람을 지목하거나 또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일치할 때만 커플로 탄생하게 됩니다.

일주일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미래의 배우자에 필요한 많은 조건과 기준이 언급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들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그건 외모와 학력, 직업으로 요약됩니다. 사실 학력과 직업은 “능력”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으니 결국 외모와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 만남에서부터 외모는 출연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길모양의 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주일 내내 움직인 만큼 강력합니다. 특히 남성 출연자들에게 여성의 외모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또 직업과 함께 학력도 매우 비중 있게 다루집니다. SBS의 홈페이지 “다시보기”방에서 매회 출연자들을 학력과 직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외모의 부족함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매회 출연자들은 달라지지만 최종선택의 기준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한 기사나 시청자들의 반응도 언제나 이 두 가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짹》이 보여주는 결혼상대를 고르는 방식은 너무나 본능적이어서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혼상대를 고르는 인간의 본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을 욕할 수도 없습니다. 그제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적 현실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외모와 능력이 권력이 된 사회에서 이를 결혼 조건으로 내거는 걸 무조건 손가락질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를 통한 계층이동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그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사랑이나 결혼은 이제 거의 유일한 계층이동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점점 더 결혼에서 외적인 조건을 따지게 되는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아마저도 쉽지 않아, 결혼엔 서로 비슷한 환경, 조건까지의 만남으로 귀결되는 게 보통입니다. 이렇게 《짹》은 우리가 다 알면서도 내심 모른 채 하거나, 짐짓 아닌 척 하는 것을 들춰내기 때문에 불편한 건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짹》의 ‘크리스천 편’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지금의 《짹》과 다를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결혼 자랑기에 있는 교우에게 누군가를 소개시켜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무엇입니까? 《짹》이 보여주는 기준에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조건만 하나 더 붙는 건 아닐까요?

모름지기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우리나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겉모습 보다는 사람의 내적 아름다움과 진실됨, 신실함 등을 보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사람 대하는 방식이 그러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짹》이 보여주는 결혼 상대 고르는 법에는 이런 내면에 대한 관심은 적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내면까지 세심히 살피기에는 턱없이 짧기도 하지만, 그렇게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평생 반라자를 고를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세상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혼 상대뿐 아니라 사람을 인정하고 대접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짹》이 보여주는 건 단지 배우자를 고를 때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건 단지 구호에 불과할 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는지를 물어봐줍니다. 어떤 사람이 “직분” 말을 사람으로 거론되는지를 기억해 봅니다. 외모, 학력, 직업, 재력, 영향력 등 세상과 그리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해 왔던 우리의 모습이 떠올라 부끄럽습니다.

텔레비전 중매쟁이 《짹》이 들려주는 불편한 교훈입니다.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연봉영성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